

『삼국유사』의 여성과 불교

- 『일본영이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선*

차례

1. 문제제기
2. 자기헌신과 투기(投棄)의 딸
3. 구제와 자비(慈悲)의 어머니
4. 유희과 자성(自性)의 부인
5. 결론

국문초록

『삼국유사』 불교설화에는 다양한 여성 군상이 등장한다. 불교가 주목한 이들 여성은 딸, 어머니, 아내로서 불법의 진리를 찾아 평등을 구현하는 역동성으로 표출된다. 불교의 삼종설은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처신의 덕을 강조하는 남성지배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여성들은 불교 안에서 순종과 억압이 아닌 자아의 구원과 독자성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딸로서의 여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극단적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효녀로 형상화되었다. 가계유지를 위한 남성의 효만이 중시되던 사회 상황에서 여성의 부모를 위한 자기 희생을 숭고하게 미화하며 효양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일본영이기』는 여성의 불효를 강조함으로써 악업징계의 주제의식을 강화했다. 이기적인 딸의 모습은 부모를 위한 효도와는 거리가 멀다.

* 연세대 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아내로서의 여성은 복합적이다. 삶의 동반자인 동시에 스승이며 육육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다. 불교수행을 보좌하는 수호신으로서의 아내는 정각으로 이끄는 견인자이다. 아울러 육육을 초극하여 여성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무아이며 공(空)이라는 인식에 이르러 마침내 성불할 수 있도록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 부인을 자성자불(自性自佛)의 현신으로 보았다. 반면 『일본영이기』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 목상을 조성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평범한 속세간의 여성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불법구제와 자비의 여성으로 응축된다. 모성의 자애로 움과 희생은 유약함과 짝을 이루기보다 강인함과 과단성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성중심에 충격을 가져왔다. 『일본영이기』 어머니는 육육을 이기지 못하는 음란한 여성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모성적 여성으로 양분된다. 이 때 어머니인 여성의 육체적 욕망은 부정되지 않고, 모성의 위배가 문제시된다. 수유하여 양육하는 어머니의 근원적 책임에 집중하였다. 이는 정신적 각성을 유도하고 불법구제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삼국유사』의 어머니와 대비된다.

불교는 기존 문화의 남·녀 통념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여성상을 부각했다. 강인하며 지혜롭고 현명하며 지도력 있는 여성의 모습은 불교가 제시하는 변화된 여성상이다. 기존의 강고한 여성의 틀을 해체하지 않으면서 잠재된 여성의 역량을 견인, 창조된 여성상을 긍정적으로 제시한 것은 분명 불교가 보여준 사회교화력이며 통섭의 힘이다.

핵심어 : 『삼국유사』, 『일본영이기』, 여성, 불교, 자기현신의 딸, 불법구제의 어머니, 자성자불의 아내, 모성, 자비심, 출세간, 육육의 극복

1. 문제제기

불교는 외래 종교로 고대 삼국에 수용되어 국가 기반을 다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한편 당대인들의 사유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령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 수복멸죄(修福滅罪)의 업설(業說)¹⁾과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²⁾은 개인의 복락과 현세적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지침이었으며 전륜성왕설(轉輪聖王說)³⁾은 왕권 강화와 통치의 정당성을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삼종(三從)⁴⁾, 여인오장(女人五障)⁵⁾ 등 여성차별적 부정적 교설과 이에 대한 타협과 극복으로써의 변성남자설(變成男子說)⁶⁾과 여신성불설(女身成佛說)도 전개되었다. 이 같은 불교의 교설은 당대 사회의 여성관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기대되고 의도된 여성의 역할을 반영한다. 불교 내에서 여성을 보는 시각의 다양화는 당대 사회의 여성관에 미묘한 균열을 가져와 여성의 존재 방식과 사유관의 변화로 나타났다.

불교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모든 중생은 각각 불성을 가지고 있기에 평등하다(一切衆生皆有佛性)는 대전제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논쟁적이다⁷⁾. 또 불교의 대승 정신에 어긋나는 여성오장설

1) 업은 행위, 조작, 작용(行爲, 造作, 作用)등을 뜻한다. 모든 업은 과보(果報)를 낳게 되며 인과응보에 의해 선업에는 낙과(樂果) 악업에는 고과(苦果)가 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 사상의 핵심이다. 즉 업설은 현재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성찰로서 인간의 의지적 행위를 강조한다. (김상현, 『新羅 中古期 業說의 受容과 意義』, 『韓國古代史研究』 4, 1990.)

2) 중생은 본래부터 여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불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인간평등사상이다.

3) 전륜성왕은 사방을 정복하고 형벌과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법에 따라 통치한다. 그 리하여 백성의 생활이 쉽고 안락하며 숭고한 덕성을 지니고 실행하게 되며 법을 지키고 화합하는 등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 (中村元, 『宗教と社會倫理』, 岩波書店, 1959.)

4) 힌두사회의 기본성전인 『마누법전』에 규정된 것으로 여인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아들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했다.

5) 『승만경』에 의하면 여성은 불결한 존재로 법기(法器)가 아니라 했다. 그러므로 범천왕, 제석, 마왕, 전륜성왕, 불신이 될 수 없는 다섯 장애가 있었다.

6) 대승불교의 『법화경』에 의해 보급된 생각으로 여성은 불타가 될 수 없으므로 남성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연후에 비로소 성불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나 삼종설은 협소하고 경직된 가부장제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시각에서 불교의 성별관을 파악해야 한다든가⁸⁾, 사회 문화적 배경과 결부된 남성우월론의 맥락에서 해석된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었다⁹⁾. 또한 여성주의 불교와 수행, 그들의 삶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젠더의 시각으로 불교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¹⁰⁾ 남성중심적 사유구조와 지배체제 내에서 왜곡된 여성의 위치를 지적하고 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과 소외의 측면에서 여성문제를 고찰하고 극복의 대안을 불교적으로 모색, 제시하는 등 긍정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왔다. 이에 반해 고대 불교 문학에서 여성이 드러나는 방식과 의미를 규명하

7) 표면적으로는 열린 대승주의를 표방하며 남성과 여성 차별을 부정하고 있으나 실제 남성과 여성이 온전히 평등하였는지는 의문이다.

8) 고영섭(『불교의 性別觀』, 『韓國佛敎學』 48집, 한국불교학회, 2006.) 불교의 성별관을 남성편향적으로 구도화된 사회의 산물로 볼 것이 아니라 중도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유연한 관점 위에서 입론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했다.

9) 구자상(『大乘佛典에 나타난 女性成佛論』, 『韓國佛敎學』 48집, 한국불교학회, 2006.)은 모든 현상적인 것에는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 보는 공사상으로 오장(五障), 변성남자를 해석하여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이수창은(『佛敎의 女性成佛論에 대한 檢討』, 『한국불교학』 48집, 한국불교학회, 2006.) 불교문헌에 나타난 여성에 관한 교설을 단편적으로 파악하거나 오늘날의 시각과 잣대로 판단함으로써 오해를 가중시켰다고 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에 대한 불교의 차별적 시각이 자의적 혹은 남성주의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보고 불교의 여성차별을 부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공(空)이론으로 성별차를 인정하지 않거나 여성에 대한 시각을 명확히 드러내기를 주저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10) 조승미(『불교수행론과 젠더문제』, 『불교학연구』 8호, 불교학연구회, 2004.), 백경임(『초기불교시대의 여성재가불자의 수행생활』, 『현대여성불자의 수행과 삶』, 불교학연구회, 2003.), 안옥선(『초기 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 『철학연구』 68, 철학연구회, 1998.), 김은희(『불교에서 보는 여성관』, 『불교와 문화』 18, 불교학연구회, 2001.), 하정남(『불교와 페미니즘, 공존 가능한가』, 『불교학연구』 2집, 불교학연구회, 2001.)의 논문들이 있다. 여성주의 입장에서 불교를 재해석하고 여성의 위치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유구조, 제도권 중심주의 시각에서 여성을 왜곡하고 있다는 기존의 페미니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는 연구는 미미하다. 관음설화의 여성 의미를 검토하거나¹¹⁾ 『삼국유사』에 나타난 여성상을 분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¹²⁾ 문학 공간은 현실보다 개방적이고 때로는 혁신적이다. 따라서 불교와 여성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 문학 텍스트 내에서 여성의 의미구현과 재해석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삼국유사』를 대상으로 하고 여성의 존재양상을 어머니, 아내와 딸로 분류하여 여성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불교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삼국유사』는 제도권, 기득권의 시각을 벗어나 속인들의 소박한 신앙과 기층민의 불교 수용의 관점에서 수록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여성 문제를 논하기에 적절하다.¹³⁾ 다시 말하면 제도권 내에서 기득권을 가진 남성에게 의해 왜곡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된 여성의 모습을 복원하기에 적합하다. 때문에 불교가 남성우월적, 가부장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균형감을 회복하고 민중을 외면한 왕실불교와 상층 여성 중심의 편향적 시각이라는 비판도 보완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불

11) 고대불교문학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주목하여 여성의 의미를 논하는 연구는 주로 관음설화에 집중되었다. 이는 관음이 여성화된 여신 혹은 모성으로 현현되기 때문이다. 관음설화에 나타난 여성형상과 의미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만하다. (박상란, 「관음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佛敎語文論集』 8집, 2003. 김현선, 「불교 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연구」, 『구비문학연구』 9, 1999. 조현설,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에 관한 시론」, 『동아시아 고대학』 7집, 2003. 최정선, 「관음설화의 여성화전략과 의미」, 『인간연구』 10,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6.)

12) 길태숙은 (길태숙 외 2인 『삼국유사와 여성』, 이회, 2003.) 『삼국유사』에 기록된 여성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분류하였다. 여성이 주체가 된 이야기들만을 선별하여 여성의 역할을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나 불교와 여성은 관음화현에 한정되어 있다. 최정선(『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 여성상』, 『불교학연구』 10권, 2005.)은 불교는 희생과 순종 이외에 결단력, 지혜, 분별력의 덕목을 여성과 결부시켜 여성을 긍정화했다고 분석했다.

13) 고대 삼국의 불교설화집 부전은 문학 연구의 걸림돌이다. 『삼국유사』는 관찰사서, 유교정치이념을 토대로 하는 남성편향적, 제도권의 역사기록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

교관련 여성을 어머니, 아내, 딸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성장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부여하는 일반적 분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망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삼종설(三從說)의 불교 교설에 나타나듯이 여성은 딸, 아내, 어머니의 위상으로 표현되며 각각의 처지에서 요청되는 처신(處身)의 덕(德)이 있었다. 이는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기본 법칙이기도 했다. 때문에 여성의 성장과 더불어 가정 내 위치변화에 동반되는 여성의 정체성을 불교 내적 문법으로 풀어내어 불교적 공간에서 여성성이 해체되거나 혹은 의미 부여되는 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고대 불교설화가 표징하고 있는 여성상의 특색을 명징화하기 위해 『日本靈異記』¹⁴⁾ 설화와 비교하고자 한다. 전해지는 불교설화 자료가 많지 않은 연구대상의 부족을 보완하고 고대 불교와 여성의 독자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교 문헌론적 방법은 유용하다. 특히 『일본영이기』에는 민중의 생활상이 생동감 있게 반영되어 있으며 여성이 중심이 되는 서사가 전체 설화 116화 가운데 53화를 차지하고 있다.¹⁵⁾ 특히 고대 삼국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된 일본은 동아시아 보편적 특징과 일본의 개별적 특수성을 유지하며 불교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다. 한·일 양국의 고대 불교가 여성을 규정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독자성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14) 『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의 약칭으로 약사사(藥師寺)의 승려 경계(景戒)가 찬술한 것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설화집이다. 편찬 목적은 민중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삼국유사』의 이야기들이 구전, 향유되던 시기(7-9세기)의 불교설화들을 수록하였으며 사도승 경계 역시 민중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와 유사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일본영이기』와 『삼국유사』 관음설화의 비교연구는 최정선 『삼국유사 관음설화와 그 시적 변용에 관한 연구』(-『일본영이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998, 연세대, 박사학위논문)에 자세히 다.)

15) 高木豊, 『佛教史のなかの女人』, 『日本靈異記女人の風景』, 平凡社, 1988, 170~182쪽.

불교가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등하다는 교리로 만인을 차별없이 포용했다고 한다면 남성중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을 평등하게 수용하는 방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불교 안에서 여성이 소외를 극복하고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방식과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자기헌신과 투기(投棄)의 딸

『삼국유사』 설화 가운데 부모를 모시는 딸의 효행을 불교적 시각으로 해석한 이야기는 「선율환생」과 「빈녀양모」가 유일하다. 「선율환생」¹⁶⁾은 선율이 명부에서 살아 돌아 온 환생담이다. 여기에 명부에서 만난 여인과의 기이한 인연이 보태졌다. 망덕사의 중 선율(善律)은 지옥에서 신라 사람으로 부모가 금강사의 논 1묘를 몰래 빼앗은 일에 연루되어 명부에 잡혀와 오랫동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논을 절에 돌려주도록 하라고 선율에게 당부했다. 선율은 여인의 집을 찾아가 여인이 말한 대로 명부를 빌었더니 여인의 혼이 찾아와 법사의 은혜로 괴로운 번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전했다. 여인의 부모는 사찰의 논을 도적질한 죄를 범했다. 부모가 행한 죄업의 과보로 여인은 명부에 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대신 받는 자의 분노와 원망도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딸의 근심은 자신의 죄를 깨우치지 못하는 부모의 불각(不覺)에 있다. 때문에 딸은 부모, 그들 스스로가 죄업을 깨닫고 속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자각하여 미혹에서 벗어나야만 조속히 죄업을 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딸은 부모의 죄를 대신해 목숨을 잃었고 부모가 죄업에서 벗어나

16) 『三國遺事』 卷五 感通, 「善律還生」

자력구제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했다. 이후 딸은 부처에 귀의하여 속세의 미련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여인은 등공양과 사경의 범공양으로 세속의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불교는 자기희생의 여인을 자비심으로 포용하였으며 속세간의 애착과 번뇌를 초극하도록 유도했다. 그런데 깨달음의 통로가 여성인 딸이 아니라 승선율이다. 딸이 직접 부모의 각성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고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선율을 통해 불교적 깨달음을 성취한다. 딸로서의 여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성의 희생은 고귀하나 여성 독단으로 자득하고 구제할 수 없다는 제한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자기 희생적인 여성의 숭고함을 칭송하는 이면에는 여성의 헌신을 강제하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자각하고 타인을 고양할 내재적 능력이 결핍된 여성일지라도 불교는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오히려 역설한다.

『삼국유사』 효선에 실린 「빈녀양모」(「貧女養母」)는 분황사 동쪽에 사는 젊은 여인이 눈 먼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판 이야기이다. 한 번 적을 팔아 최하층 신분의 천민인 노비로 전락하면 양인의 신분을 회복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사노비가 되고 나면, 주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 증여, 매매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 외곽의 하층민이자 약자인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파는 일이었다. 이는 「진정사효선쌍미」의 진정이나 「대성효이세부모」의 김대성처럼 출가와 추선으로 어머니의 왕생을 보장하는 효행과 대조적이다. 남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명을 담보로 혹은 자신의 신분을 낮춤으로써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행하지 않는다. 대신 불교에 귀의하여 자신이 먼저 깨달은 자가 됨으로써 부모를 함께 깨달은 자의 위치로 견인한다. 자신이 불법에 귀의함으로써 부모도 함께 불법 구제한다. 즉 남성은 효행의 목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여 스스로 빈천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불교 안에서 숭고해짐

으로써 부모를 함께 높이는 방식의 효를 택한다. 『진정사효선쌍미』의 진정은 불법에 귀의하여 어머니를 극락왕생하게 하였고 김대성은 불교사와 석불사를 세워 전생과 이승의 두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여성은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온전하게 희생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¹⁷⁾ 남성은 자신의 성취를 통해 부모를 함께 높이는 방식으로 효를 실행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은 부모를 깨달음(覺)에 직접 이르도록 하기보다는 타인과 소통하는 중개자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방식의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 부모를 깨달은 존재로 전환시켜 왕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깨달은 자는 불교 안에서 모두 평등하기에 방식의 차는 다양할수록 좋다. 아니 다양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양했다. 오히려 여성의 방식이 자발적 자기희생이며 타인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점에서 자비로운 불심에 더욱 가까웠다 하겠다.

『일본영이기』의 설화가운데 부모와 딸의 관계가 주축을 이루는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비해 풍부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머니에 대한 불효담은 있으나 아버지에 대한 불효의 이야기는 없다. 아울러 딸이 부모에게 효행을 하여 덕을 칭송받는 것보다 악행을 해서 죄업에 대한 징벌을 받는 이야기가 많다¹⁸⁾. 가령, 굶주린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이미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딸의 집에 찾아가 밥을 달라고 한다. 그러나 매정한 딸은 밥이 없다는 거짓 핑계를 대어 어머니를 길로 내쫓는다. 이로 인해 딸은 벌을 받아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과 같은 격통을 느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날 밤 목숨을 잃는다¹⁹⁾ 내용의 설화가

17) 딸이 스스로 목숨을 희생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후에 존귀하게 되는 이야기는 『심청전』에서도 확인된다. 심청은 관음보살의 진화된 여성상이므로 불교 색채가 반영된 효행담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18) 高木豊, 『佛敎史のなかの女人』, 平凡社, 1988, 129~147쪽.

19) 『日本靈異記』 上卷 24話

있다. 어머니에게 불효한 딸이 즉시 벌을 받음으로써 악업을 경계하는 의미가 강화되었다. 부모의 죄를 자신이 대신 받는 것과 자신의 죄악에 대한 징벌을 그 즉시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전자가 대승적 희생이라면 후자는 인과응보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또한 딸과 어머니관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중심이 되는 설화도 등장한다. 시어머니와 악녀로서의 며느리에 얽힌 이야기는 매우 자극적이다²⁰⁾.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악한 마음이 비도덕적 행위로 표출되었다. 악업에 대한 징계는 악행을 행한 당사자의 죽음으로 결론난다. 극악한 감정과 비이성적인 인간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으며 여성(딸 혹은 며느리)을 악녀(惡女)로 형상화했다. 『영이기』 설화는 대부분 선업(善業)을 권장하기보다 악업(惡業)을 경계함으로써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교리를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선한 심성의 여성보다는 사악하고 비도덕적 악녀의 형상이 빈번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표상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악한 사람이 징벌을 받는 쪽이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보다는 강한 인상과 심리적 경각심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극적 결말과 자극적 응징에 의한 귀결은 불교의 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효과적 장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불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불효가 대표적 악업일진대 그 대상이 어머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부장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여전히 모계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고대 사회의 모성존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국유사』는 부모를 위해 자신을 투기(投棄)할 수 있는 효녀를 불교적 시각으로 재조명했다. 여성이 부모의 뜻을 헤아려 효행을 행하는 방

20)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남편을 시켜 시어머니를 살해하도록 한다. 이에 남편이 어머니를 광야로 이끌어 내어 죽이려 하는 순간 벼락을 맞아 죽사하였다. (『日本靈異記』 中卷 2話)

식이 자아희생으로 나타났다. 자아희생은 자아의 부정이며 소멸이라는 점에서 매우 극단적이다. 부모의 잘못을 대신해서 명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거나, 노비가 되어 부모를 봉양했다. 부모와 딸의 관계에서 딸의 인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을 뿐이다. 부모의 부재는 자신의 소멸과 직결된다. 때문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효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흔쾌히 희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신체를 훼손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현실에서 자청해서 노비가 되거나 생명을 포기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소소한 효행으로 보인다. 여성은 부모를 위해 전폭적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했으며 이것이야말로 여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숭고함이라고 불교는 역설하고 있다. 여성에게 희생은 강요했기에 여성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 여기에 있다. 자기 희생은 숭고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이며, 딸도 부모를 위한 효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딸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여성의 덕목을 긍정화했다. 또한 『일본영이기』와 비교하면 『삼국유사』에서는 악녀의 모습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고대 한국의 불교가 악업에 대한 즉각적 징벌의 종교이기 전에 궁극적으로 인간 본성을 수양하고 마음공부를 통해 수준 높은 인간애를 확보하는 방편으로 전면화되었기 때문이다.

3. 구제와 자비(慈悲)의 어머니

어머니로서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없이 재생되는 모성이었다. 모성은 사회유지를 위해 여성에게 부가된 책임의식이다. 찬미된 모성은 여성이 강제 혹은 억압을 느낄 틈을 주지 않고 여성의 본성으로 치환된다. 때문에 여성에게 걸뒹된 모성은 인간성의 왜곡과 동일시되고 모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식의 상승이 두드러져 여성은 찬탄의 대상이 되는 연계고리를 가진다.

『삼국유사』 불교설화에는 다양한 어머니들이 등장한다. 모성은 자식을 불법의 세계에 귀의하도록 견인하는 대승적 모성의 실천과 현실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해결자로서의 적극성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다양성을 관통하는 일관성은 이들 어머니들이 지혜와 결단력의 소유자이며 실천자들이라는 점이다. 희명의 어머니는 자식의 개안을 위해 기도하고²¹⁾, 보개의 어머니는 민장사 관음전에 나아가 자식이 무사귀환²²⁾을 위해 기도한다.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진정성의 표출이며 진심이 부처에게 전달될 때 고난 해결이 가능함을 어머니는 자득하고 있었다. 불성을 가진 깨달음의 어머니이자 불법 수행의 실천자였다. 모성의 지극함이 불교 안에서 부처를 위한 진정함과 수행으로 드러나 긍정적 결과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자식에게 구복의 공양을 받기보다는 불법의 큰 바다로 인도함으로써 자식을 성장시키는 어머니는 진정사, 사복의 어머니이다. 진정사의 어머니는 “불법(佛法)은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너무나 빠른 것이니 효도를 마친 후라면 또한 늦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찌 내 죽기 전에 네가 불도(佛道)를 이는 것만 하겠느냐,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며 아들의 출가를 독려한다. 어머니에 대한 효와 불교적 정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들이 한시라도 빨리 속진의 질곡을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견인하였다. 아들에게 구양을 받는 안락한 현세적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였다. 이로 인해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불법 안에서 정도왕생하여 영원한 불법구제를 얻었다.

21) 『三國遺事』 卷三 塔像 「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

22) 『三國遺事』 卷三 塔像 「敏藏寺」

사복의 어머니²³⁾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괴로우니라” 하는 무상(無常)의 깨우침을 주고 아들을 데리고 연화장세계로 돌아갔다. 원효와 사복은 전세에 사복의 어머니인 암소에게 경전을 듣고 다니게 한 업보로 인해 사복은 전생에 암소였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복은 전생의 업으로 12세까지 말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사복은 인생살이의 나고 죽음이 모두 고통임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연화세계에 돌아감으로써 속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생에 암소에게 경을 듣고 다니는 힘든 일을 시킨 죄업으로 인해 현세에 모자의 인연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의 전생의 업보를 불쌍히 여겨 더욱 큰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이 괴로우며 세상살이가 허망한 것이므로 미망을 벗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인도했다. 인생의 허망함을 단도직입적으로 깨우쳐 불법에 귀의하도록 견인하고 비친한 것이 가장 숭고하다는 역설을 사복의 어머니는 몸소 가르쳤다. 불법의 높은 뜻을 축생인 소와 불구인 인간의 환생으로서 체득하고 눈에 보이는 실상과 현세적 체험의 무상함을 가르친 것이다.

현실적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머니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자식을 구원한다. 기도는 결국 간절한 소망의 표출 수단이다. 가난하여 삶이 꺾인 상황에서 현실적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월적인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아들 장춘이 바다에 나가 오래도록 소식이 없자 민장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7일 기도를 드렸더니 부처의 신이한 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관음보살의 모성적 보살핌이 어머니의 기도와 통하여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이적을 만들었다. 자식의 개안을 위해 천수대비전에 나아가 기도를 올린 희명의 이야기는 모성이 현실적

23) 『三國遺事』 卷四 義解 「蛇福不言」

변화를 직접 가져왔다는 점에서 역동적 감동을 준다. 인식과 현실의 논리를 뛰어넘어 대자대비한 기적을 이끌어낸 어미의 ‘마음’은, 가장 온화하고 낮은 자세로 중생의 아픔에 공감했던 부처의 마음과 다른 것이 아니기에 모성과 불교의 근원적인 접점²⁴⁾을 이루고 있다.

『일본영이기』에 나타난 모성은 실제적이며 본능적이고 육감적이다. 희생하는 어머니와 음란한 어머니가 공존한다. 모성의 관점에서 해석된 자비의 어머니와 생물학적 여성의 입장에서 육욕을 견디지 못하는 충동적 여자의 모습이다. 우선 자비와 희생의 어머니는 아들의 군역 복무에 함께 따라가 아들을 보살핀다. 그리고 자신을 살해할 악한 마음을 가졌던 아들을 위해 독경을 하고 추선공양을 하며 오히려 아들의 죄업을 멸하려는 자비심을 보였다.²⁵⁾ 전생에 아들의 물건을 훔쳐 사용한 죄로 인해 현생에 아들의 소(牝牛)로 환생하여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어머니도 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불교적 공덕을 행해 어머니와 자신을 위한 선업을 쌓게 되었다.²⁶⁾ 어머니가 소로 환생했다는 점에서 <사복불언>과 유사하다. 다만 사복의 어머니가 아들을 연회장으로 직접 인도한데 반해 현세에서 공덕을 쌓도록 유도했다. 실천가능한 불법정진의 방법을 제시하므로 지극히 현실적이다.

『일본영이기』 설화 가운데 성적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음란하나 지극히 인간적이기도 하다.

24) 허혜정, 『불교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盲兒得眼歌> 연구』, 『불교학연구』 8호, 불교학연구회, 2004.6, 161쪽.

25) 『日本靈異記』 中卷 3話. 방인(防人)에 지명되어 3년 군무를 하게 된 아들을 따라 어머니가 임지에 갔다. 아들은 보인이 그리운 마음에 어머니를 살해하여 면역(免役)을 얻은 후 고향에 돌아가 아내를 만날 계교를 꾸몄다. 어머니를 산 속으로 유인해 죽이려는 순간 땅이 갈라지며 아들이 떨어져 죽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나아가 추선공양을 하며 아들의 명복을 빌었다.

26) 『日本靈異記』 中卷 15話.

黃江臣成刀自女는 越前國加賀郡사람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다정해서 여러 남자와 쉽게 정을 맺었다. 나쁜 습관 때문이었을까 젊어서 죽었다. 이 때 寂林法師가 꿈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젓가슴이 고름에 차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연유를 물은 즉 전생에 어린 아이에게 수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배 고프게 하고 자신은 남성과 어울렸다 했다. 전생의 죄과로 현세에 젓가슴이 부어 아픈 통증을 느끼고 있다 했다. 스님은 여성이 말한 마을에 찾아가 어린 시절 배를 품었던 아이를 찾아보니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 스님은 꿈에서 본 일을 이야기하고 불상을 만들고 경을 서사해서 어머니를 추설했다.²⁷⁾

음란한 어머니가 전생의 죄로 인해 현세에서 고통을 받았다. 포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성 욕망에 충실했던 어머니는 여성이자 어머니의 상징인 젓가슴에 고름이 차오르는 고통을 겪는다. 불교의 시각에서 여인은 불사음계(不邪淫戒)를 범했다. 그러나 외간남성과의 통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다. 여인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였기 때문에 다정다음(多情多淫)한 생활이 문제시되지 않았던 듯하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의무가 있듯이 어머니도 아이에게 젓을 먹여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기에 징벌을 받았다. 육체적 욕망에 이끌렸던 어머니의 징벌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이다. 어머니의 욕정이 부정적으로 문제화 되었지만 어머니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의 본능을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실제적이다. 또한 과부의 음란함을 비난하지 않고 자녀양육의 불성실함을 전면화함으로써 모성의 문제에만 집중하였다.

모성이 강조된 불교설화는 모성이 발현되는 대상이 주로 아들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다. 보개의 어머니는 매우 가난하여 아들만을 의지하며 살았으며 아들의 귀환을 위해 기도를 했다. 진정의 어머니도 아들에게 출가를 권했으며 사복의 어머니도 아들을 연화장으로 이끌었다. 모성이 아

27) 『日本靈異記』 下卷 16話의 이야기를 줄거리 중심으로 줄였다.

들을 위해 발현되는 것은 가계의 중심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로 인해 어머니의 존재감이 증명된다는 일반적 통념과 일치한다. 불교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불결하거나 부정적인 존재로 이해되는데 비해 어머니인 여성은 육체로서의 여성성이 제거된 채 숭고한 희생의 미덕으로 승화되었다. 어머니의 희생은 아들로 인해 더욱 빛나게 되고 가치있는 모성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여성성이 부정되는 자리에 모성이 대치되면서 아들을 위한 모성으로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성이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방식이 아들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다. 하지만 훌륭한 자식의 근저에는 자식을 뛰어나게 키워낸 어머니의 공덕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며 여성 차별적 시각을 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도 자력왕생은 아니더라도 아들을 매개로 하여 극락왕생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여성 성불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 안에서는 여성도 차별 없이 평등한 존재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 어머니는 대부분 가난하거나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라는 공통항으로 묶인다. 결핍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가중된다. 사회와 가정 안에서의 보호벽인 남편의 부재와 경제적 빈곤의 현실은 여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은 불교 공간 안에서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거대 시련 앞에서 여성들은 불법에 호소하였고 불교는 꺾진한 삶의 고통 속에서 유일한 희망인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수용하였다.

불교는 고대 사회의 지모신적 모성, 소박한 모성을 수용하여 모성의 가치를 미화하고 불법 안에서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위안을 줌으로써 평등한 인간애를 실천했다.

4. 유흥과 자성(自性)의 부인

여성의 존재는 관계망 속에서 의미를 형성한다. 자식, 남편, 혹은 부모와의 연결 고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한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여성은 아내로서의 헌신과 보살핌, 그리고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역할한다. 남편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아내의 덕목이었다. 또한 아내는 자손을 낳아 집안을 이어가야하는 여성 고유의 책무와 동시에 남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더 높은 지위에 이를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도 감행해야 했다. 이들 아내는 현실감이 뛰어나고 적극적이다. 그래서 남편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는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적 대상으로서의 아내의 육체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의 육체를 다만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볼 때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역설한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육체를 초극하여 성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한 인식의 각성이 이루어진다. 불교에서는 여성의 몸을 빌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이 여성의 몸으로부터의 유흥을 넘어설 때 비로소 인식적 탄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여성의 육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유흥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아둔함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 때 여성은 인식적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도화선이다. 육체와 정신을 공유하는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미망에서 벗어나 각(覺)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남편이 사회적 지위와 존경을 확보하거나 진정한 불법에 귀의하고 정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인은 자신의 육체성을 소거하여야 했던 것이다.

아내로서의 여성은 「광덕 엄장」조의 광덕의 아내, 「김현감호」의 호랑이 부인,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의 조신의 부인이 대표적이다. 이들 여성들은 남편이 속간의 미망과 허상에서 벗어나 더 큰 성취를 이루도

록 보조한다. 광덕의 아내는 남편이 수도에 정진하여 서방정도에 갈 수 있도록 도왔다. 남편이 뜻을 이루고 난 후에는 남편의 친구인 엄장과 함께 살게 되었다. 엄장이 여인에게 욕정을 품고 잠자리를 같이 하려 하자 “대개 천리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첫걸음부터 알 수 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동방으로 가는 것이지 서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질책하였다. 엄장은 이에 깨친 바 있어 한마음으로 도를 닦아 마침내 득도할 수 있게 되었다. 광덕은 그의 아내와 십 여 년을 살았지만 일찍이 하룻밤도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 했다. 이는 아내에게서 여성다운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육체의 유혹, 즉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모습도 무아(無我)이며 공(空)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광덕은 이미 세상에 나고 죽는 것, 인간의 삶이 무상하므로 생명을 잉태하는 일 자체로 악업을 짓는 것이라 판단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본인과 부인의 왕생을 위해 수도에만 마음을 쏟았다. 반면 엄장은 깨달음이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해 인간 욕망과 본능적 충동에 쉽게 이끌리는 사람이었다. 그로 인해 부인을 맞이하자 욕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엄장은 불법을 수행하는 속세간의 평범한 인물의 전형이다. 재가수행자인 엄장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 정각으로 이끌어 줄 안내자가 필요했다. 아내는 남편이 높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견인했다. 그런데 분황사 계집종²⁸⁾이었던 광덕 아내는 실제 관음의 현신이었다. 미천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숭고하였다.分別심이 본질을 가리도 있었다. 아집이 균열되며 천속과 비속의 경계가 무너졌다. 비천한 것이 실제 비천한 것이 아니었다. 낮은 것을 거쳐 높은 것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비속한 것이 아

28) 계집종과 관련하여 『육면비염불서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천한 여인의 몸으로 성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여인불성불론 혹은 여인변성성불론이 주요 담론이었던 시기에 여종 육면의 즉신성불(卽身成佛論)은 한국 불교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담론이다.

니었다는 것이다. 인생의 동반자인 동시에 스승인 아내는 사회적 관념을 벗어난 자유어로 열려진 존재이다. 남성에게 복속하는 열등한 존재로서의 아내도 아니고 남성에게 대항하는 대립자도 아니다. 남성을 포용하고 이끄는 자성자불의 존재가 여성으로서의 아내이다.

『김현감호』의 호랑이 부인²⁹⁾은 남편을 출세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여인이다. 호랑이 처녀는 사람을 해친 죄를 물어 자신의 가족을 하늘이 징계하러 하자 오빠들을 대신해서 죄과를 받겠다 자청한다. 타인을 대신해 벌을 받아 희생물이 되겠다 스스로 선택했다³⁰⁾. 또한 남편을 위해 스스로 문제 상황을 만들고 해결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남편의 벼슬길을 열어 주었다. 아내로서 여성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남편의 세속적 성취를 도와준다. 유교의 정절과 열녀 윤리와 구별되는 불교적 맥락의 아내상을 반영한다. 부부간의 인정이란 서로 상보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인 아내의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남편이 벼슬에 오르고 호환으로부터 사람들의 목숨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으니 고귀한 희생이 된 것이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개인적 부덕(婦德)이 사회적 의미로 확대되었다.

조신의 꿈은 세류사의 승 조신이 혼자 마음을 두고 있던 고귀한 신분의 낭자와 꿈에서나마 부부의 연을 맺은 이야기이다. 불법을 수행하는 불자로서 여성을 흠모하여 마음에 동요가 생겼다.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조신은 현세적 욕정과 종교적 초극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는 김혼의 딸과

29) 아내의 실체가 호랑이로 설정된 것은 현실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을 위해 목숨까지 선뜻 희생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웠거나 미물인 동물의 지극한 남편 모시기를 통해 인간의 각성을 유도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30) 처녀의 자발적 희생이라는 점에서 앞장에서 언급한 딸의 효행과 겹친다. 여성을 타인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억압하기도 했지만, 자기희생적 숭고함을 여성에게 나타나는 고귀한 정신적 덕목으로 해석하면 여성성의 긍정적 발견이기도 하다.

세속적인 사랑의 성취에 마음을 뺏겨 있었다. 조신은 꿈에서 세속의 사랑을 성취해 현실의 대리체험을 함으로써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부질없음을 깨닫는다. 아내는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이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에 따라 할 수 없는 일이니 결혼 생활을 그만 끝내자고 건의한다. 현실의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몽중부부로서 아내는 합리적인 문제해법을 제시한다. 인생사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고 세속의 가치들, 예컨대 미모, 애착, 신의, 사랑의 감정들이 모두 근심의 단초가 된다고 설교하였다. 조신은 꿈에서 인연을 맺은 아내 덕분세상살이의 허탄함을 자각하고 불도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내인 여성은 자성자불한 존재로 남편을 가르쳐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

『일본영이기』설화 가운데 아내의 역할은 어머니와 비교하면 매우 미미하다. 아내는 남편의 사후 아미타 화상(畫像)을 그려 남편을 추모하고 법회를 운영하였다³¹⁾. 남편의 사후, 아내는 아미타 불상을 만들기로 뜻을 세워 매 가을 낱알을 모아 자금을 마련하였다. 아내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아미타 화상은 본당에 화재가 나도 손실이 되지 않았으니 여인의 깊은 불심을 알 수 있었다. 경계는 논평에서 “매우 훌륭하다. 이 현숙한 정부(貞婦)여! 당신은 죽은 남편을 추모하여 공양을 했고 가을에 화상(畫像)을 완성하여 법회를 열었다. 마음의 도타움을 알 수 있구나. 격렬한 화재의 불꽃에도 진심을 담은 불상은 손실되지 않았구나. 이는 여러 신불의 도움이다. 이런 일은 이해할 수 없어도 사실이다. 의논할 필요도 없다.”라 했다. 아내의 성심(誠心)과 남편을 향한 지조를 높이 평가했다.

31) 『日本靈異記』上卷33話.

하권(下卷)의 7화(話)는 관음목상에 얽힌 기적담이다. 아내는 무인(武人)으로 오지에 적을 토벌하러 간 남편을 위해 관음목상을 조성하여 일심으로 부처를 공경하고 공양하였다. 아내의 정성으로 남편은 무사히 돌아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함께 공양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후 남편은 적에 끌려가 억울하게 참수당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관음불의 기적같은 도움으로 처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관음의 도움으로 재난, 형벌에서 벗어난 기이담이다. 아내가 남편의安危를 걱정해 관음에게 기도하고 공양해서 남편을 두 번이나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제해냈다.

아내로서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도반으로서의 현명함과 견인력이다. 아내로서의 여성에게는 무조건적 헌신과 자기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남성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온전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할당된다. 여성은 남성이 큰 뜻을 이루어 인생의 질적 전환이 가능한 변화를 일구어낸다. 방법론적 지혜를 내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해결자이다. 그런데 여성의 역할을 남성을 견인하는 지혜와 예지로 설정하고 보면 여성우월적인 시각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오해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야기 속 여성은 관음의 화신이거나 호랑이, 꿈 속의 여인으로 탈색되었다. 깨닫지 못한 남성을 깨달음(覺)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부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었으나 이것은 매우 특수한 위치의 부인에게나 가능한 것이었으니 이 역시 남성위주의 남녀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편협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5. 결론

『삼국유사』 불교설화에는 다양한 여성 군상이 등장한다. 이들 여성은 어머니, 아내, 딸로서 역동성을 드러낸다. 딸로서의 여성은 부모와의 관

계에서 조건 없는 희생의 효녀로 형상화되었다. 아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출가함으로써 부모의 왕생을 도모하는데 반해 딸은 자신의 목숨과 신분을 과감하게 낮춤으로써 부모를 구제한다. 이는 아들의 출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도정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에 반해 딸은 부모의 구양을 뒤로하고 출가할 수 없었던 사회적 통념과 관계된다. 또한 딸의 이상화된 모습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권력구도 속에서 재편되어 여성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미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희생을 숭고하게 찬미하며 여성을 효양의 실천자로 수용한 것은 의미 깊다.

아내로서의 여성은 다층적이다. 현명한 아내로서의 지도자상과 유혹하는 여성으로서의 요부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상화되는 것은 동반자이자 스승으로서의 아내이다. 불교수행을 보좌하는 수호신으로서의 아내상은 원시 모계사회의 여신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아내는 자성자불의 형상으로 부처와 닮아 있다. 아내가 있는 남성이 쉽게 왕생하고 성불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성이야말로 속박에서 벗어나 출세간적 자유에 열려있는 불성의 실체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대해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성을 견인하고 포용하는 대승적 자비의 실천자였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자비와 희생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덧붙여 자애로움과 희생이 유약함과 짝을 이루기보다 강인함과 과단성 있는 결행력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성 중심에 충격을 가져왔다.

불교의 여성관은 사회적 관념과 제도 안의 여성 역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여성상을 부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강인하며 지혜롭고 현명하며 지도력 있는 여성의 모습은 불교가 제시하는 변화된 여성상이다. 기존의 강고한 여성의 틀을 해체하지 않으면서 잠재된 여성의 역량을 견인, 창조된 여성상을 긍정적으로 제시한 것은 분명 불교가 보여준 사회교화력이며 잠식력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영이기』 불교 설화에는 선하고 이성적인 여성보다는 악하고 감정적인 여성이 우세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개악수선(改惡修善)의 주제 구현 방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을 우월하거나 혹은 초월적 지위로 격상시킬 수 없었던 당대 사회상과 일치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영이기』의 어머니에게는 모성과 더불어 육체적 욕망에 담금질당해 시련을 겪는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로 형상화되기도 했다. 이는 여성이 유혹의 육체를 가졌으며 동시에 유혹에 약한 인간적 존재임을 상징한다. 하지만, 본능적 나약함을 극복하고 위대한 모성으로 환원될 때 비로소 어머니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내로서 여성은 성적인 유혹자의 모습보다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조용히 보조하는 역할, 즉 내조자의 충실한 전형으로 설정되었다.

불교는 사회적인 관습으로 인한 역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불교의 공간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역할 범위를 확장해 주었다. 딸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강제된 희생을 초극하여 대승적 깨달음을 통해 인식의 확장을 가져 올 수 있게 했다. 사회의 외곽에 경계인으로 존재했던 노비, 과부까지 위대한 모성과 불성의 소유자로 격상시키며 여성의 잠재적 가능성과 평등함을 드러낸 것은 뜻 깊은 전환이었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길태숙 외 2인, 『삼국유사와 여성』, 이회, 2003, 240~299쪽.

일연, 이민수 역, 『삼국유사』, 범우사, 1986.

西口順子, 『中世の女性と佛教』, 法藏館, 2006, 112~119쪽.

中村元, 『宗教と社會倫理』, 岩波書店, 1959, 35~88쪽.

2. 논문

고영섭, 「불교의 性別觀」, 『韓國佛敎學』 48집, 한국불교학회, 2006, 160~201쪽.

구자상, 「大乘佛典에 나타난 女性成佛論」, 『韓國佛敎學』 48집, 한국불교학회, 2006, 272~313쪽.

김상현, 「新羅 中古期 業說의 受容과 意義」, 『韓國古代史研究』 4, 1990, 31~57쪽.

김은희, 「불교에서 보는 여성觀」, 『불교와 문화』 18, 2001, 40~48쪽.

김현선, 「불교 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연구」, 『구비문학연구』 9, 1999, 47~75쪽.

박상란, 「관음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佛敎語文論集』 8집, 2003, 31~46쪽.

안옥선, 「초기 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 『철학연구』 68, 1998, 165~192쪽.

이수창, 「佛敎의 女性成佛論에 대한 檢討」, 『한국불교학』 48집, 한국불교학회, 2006, 8~31쪽.

조승미, 「불교수행론과 젠더문제」, 『불교학연구』 8호, 2004, 83~122쪽.

조현설,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에 관한 시론」, 『동아시아 고대학』 7집, 2003, 61~80쪽.

최정선, 「관음설화의 여성화전략과 의미」, 『인간연구』 10,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6, 117~147쪽.

최정선 『삼국유사 관음설화와 그 시적 변용에 관한 연구』(-『일본영이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998,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하정남, 「불교와 페미니즘, 공존가능한가」, 『불교학연구』 2집, 불교학연구회,

2001, 105~147쪽.

허혜정, 「불교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盲兒得眼歌> 연구」, 『불교학연구』 8호, 불교학연구회, 2004.6, 145~163쪽.

高木豊, 『佛教史のなかの女人』, 「日本靈異記女人の風景」, 平凡社, 1988, 170~182쪽.

Abstract

Female figures and Buddhism in *Samkukyusa*
- compare to *Nihonryoiki* -

Choi, Jung-sun

Various types of female figures are found in *Samkukyusa*. They were entitled a daughter, wife and mother in Buddhism and expressed very dynamic and active way. In respect of *Samjong* (woman should obey her father, husband and son respectively) reflects male-dominated thoughts and social norm by restricting woman's free will and decision. However, woman in *Samkukyusa* pursues her own cure of souls and individuality instead of submitting to man's authority. For instance, female as a daughter is idealized by doing self-sacrifice to her parent's voluntarily. It could be explained as a meaningful discovery of woman's virtue of filial piety which is considered as man's duty at those days. In contrast, *Nihonryoiki* emphasizes disciplinary punishment of evil deed such as their undutifulness to their parents. It must be more effective way to deliver simple rule of punitive justice by showing direct punishment to malicious behaviors.

Female characters as a wife could be explained more complex and diverse way. She, as a wife, acts as a life partner, mentor and seducer as well. In the concrete, she plays an active role as a guardian to help her husband to achieve the right Buddahhood. Furthermore, she induces him to get over carnal desire and leads him to realize that appearances and realities in the mundane world are basically emptiness itself. On the other hand, wife in *Nihonryoiki* is building

Buddhist sculpture and praying for her husband to the sake of his well-being in a hard situation. This figure is closer to typical wife role in ancient.

Finally, mother figure can be condensed by benevolence and salvation. It is important that mercy and self-sacrifice are matched with strong soul and decisive action rather than effeminate one so it leads an agitation on common ideas of role between man and woman in those days. In addition to this, lascivious and hopeful mother are expressed in *Nihonryoiki* . As a mother, her physical desire is not denied nor despised in the case of a widow. Blame for her is only placed her ignorance of feeding her son. In short, role as a mother seemed to be considered most valuable virtues.

A new role and understanding of woman are brought up by Buddhism along with an accommodation in social common thoughts about man and woman. Equipped with a absorptive leadership, strong power of execution and clever sense in judge are newly discovered or renewed woman images through the respect of Buddhism.

Key words : *Samkukyusa*, *Nihonryoiki*, female virtues, Buddhism, self-sacrifice daughter, Wife, mother, maternity, mercy, mundane world, overcome desire.

■ 본 논문은 5월 3일에 접수되어 5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